

【국어생활 논단】

한국 말본 의식의 싹

—《삼국유사》의 “助辭” 산출의 토양적 여건에 대하여—

문효근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1. 도입

우리의 말본 의식이 언제부터 싹트기 시작했으며, 그 의식으로 산출된 구체적 표기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느냐는 문제는, 곧바로 그러한 의식이 의거하게 된 당시의 우리 선인들의 사유의 형식·방법·형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말본 의식이 의거한 의식 구조에는 우리의 오랜 문화가 지닌 사상적 전통성이 깔려 있을 것이며, 밖으로부터의 여러 가지 문화적 자극이 또한 함께 작용했으리라 생각된다.

《삼국유사(三國遺事)》(1285)라면 고려 후기에 속하는 충렬왕 때의 선승(禪僧) 보각국사(普覺國師) 일연(一然, 1206-1289)이 지은 역사 책이다. 거기에는 우리의 역사, 국어, 국문학민속 등 삼국시대의 귀중한 자료들이 실려 있다. 그 중에서도 불교에 관한 방대한 자료와 우리말을 한자의 음(音)과 훈(訓)을 빌어 적은 향가(鄉歌) 14수의 내용과 그 표기법에는 여기서 제시한 “助辭”의 인식의 문제와 더불어, 우리 국어학도들에게는 더할 수 없는 흥미를 자아내게 하는 귀중한 연구 거리가 들어 있다. 따라서, 우리

국어학도가 보는 《삼국유사》에는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의 문제가 제기, 논란될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문제의 초점을 우리의 말본의식의 싹이라고 할 수 있는 “助辭” 산출의 토양적 여건에만 국한시키기로 한다.

《삼국유사》 셋째 권 「原宗興法과 猷髑滅身」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온다.

原宗興法(距訥紙世一百餘年)猷髑滅身

姓朴字猷髑(或作異次. 或云伊處. 方音之別也. 譯云猷也. 髑, 頓, 道, 觀, 獨等皆隨書者之便. 乃助辭也. 今譯上不譯下. 故云猷髑又猷觀等也.) 其父未詳.

우리의 말본 의식의 새 싹이라 할 수 있는, 여기 제시된 이 “助辭”를 두고 이를 산출케 한 토양적 여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이 논문에서는 그 부제에 “《삼국유사》의 「助辭」 산출의 토양적 여건에 대하여”라고 했으므로 마땅히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내용이 고려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助辭” 산출의 토양적 여건에는 일연(一然) 당시의 각종 국내외의 “助辭”관련 기록이 여기서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삼국유사》의 “助辭”(말본의식)는 일연이 살던 그 지리적 자연환경과 일연이 살던 그 사회, 그 시대정신에서 산출되었음에 유의한다면 이는 바로 선승 일연과 그와 더불어 살던 그 때 그 곳 그 사람들의 세계관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助辭”산출의 토양적 여건에는, 이원적인 사상의 사변적인 맥락에서 일컬어지는 체용(體用) 사상이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일연 당시의 우리 선인들의 사유의 유형이자 우리의 말본의식이 의거하게 된 의식 구조에는, 본래적으로 잠재적으로 불교 사상이나, 송학에서 일컬어지는 체용 사상이 잘도 맞물려 들어가게, 잘도 먹혀 들어가게 되어 있는 터에, 이에 우리 선인들의 논리적 사유의 자각적 추론이 합리적으로 작용하여 마침

내 “助辭”(말본의식) 산출에, 체용 사상이 또한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학적인 긍정적 자극에는 안으로는 우리 조상 전래의 한국적 사유 방식의 하나의 형태로서 원효(元曉, 617-686)와 지눌(知訥, 1158-1210)의 불교 사상인 체상용(體相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한국 사람의 철학적 사색에 대한 소질과 역량은 불교 사상의 이론적 전개에 잘 나타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고 한, 박종홍의 말(「한국 철학과 한국 불교」, 1975)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밖으로부터의 사상적 자극으로는, 사변(思辨)의 범주로서의 체용의 개념이 중국식 사변에 잘 친숙해질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한 시마다 겐지(島田虔次)의 말(「주자학과 양명학」, 1985)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삼국유사》의 “助辭”의 대(對)는 “實辭”이다. “助辭”는 불교 사상이나 송학적인 「用」에, “實辭”는 불교 사상이나 송학적인 「體」에 맞물린다. 그도 그럴 것이 송학적인 체용 사상은 불교 체용에서 왔다고 볼 때, 불교의 육경(六境, 곧 色, 聲, 香, 味, 觸, 法)의 것은 육체와 사고 작용의 대상이며, 인식의 대상이자, 객체계의 것으로서, 《훈민정음》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는 「황극경세서(皇極經世書)」(邵雍, 1011-1077)의 만물의 체(體, 곧 色, 聲, 氣, 味)에 가까우며, 불교의 육근(六根, 곧 眼, 耳, 鼻, 舌, 身, 意)은 육경에 대한 「보고, 듣고, 맡고, 맛보고, 당고, 알고」하는 요별(了別) 작용을 하는 육식(六識, 곧 眼識, 耳識, 鼻識, 舌識, 身識, 意識)의 것으로서 「황극경세서」의 만물의 용(用, 곧 目, 耳, 鼻, 口)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助”와 “用”, “實”과 “體”의 맞물림은 또한 “靜”과 “體”, “動”과 “用”과도 맞물린다. 이 같은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또 하나의 근거는 주시경의 말본 연구의 기초에는 「성리학의 체용 사상」과 「불교의 체용 사상」(줄고, 「주시경의 말본 연구의 기초—그 “웃듬걸”과 “불이걸”에 대하여—」, 「이중언어학회지 6집」, 1990 참조) 최현배의 《우리말본》(1955)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줄기[語幹]는 그 씨의 바탕스런 뜻[실질적인 의미]을 대표하여 정적(靜的) 상태를 가지는[취하는] 고정부분(固定部分)이요, 씨끝[語尾]은 그 씨의 말본스런 관계를 나타내는 형식적 의미[꼴새스런 뜻]를 대표하여, 동적(動的) 상태를 가지는 활용부분(活用部分)이니라”(158쪽)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줄기[語幹]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정적(靜的)인 고정부분이라 하고, 씨끝[語尾]은 그 씨의 말본스런 관계를 나타내는 형식적 의미를 대표하는 동적인 활용부분이라 했는데, 이는 “줄기”는 “靜”이자 “體”에, “씨끝”은 “動”이자 “用”에 맞물림을 뜻한다.

「체용론」에서 일반적으로 본체를 고정적인 것, 정적인 것, 제일차적인 것을 말하고, 작용을 본체에 대한 부수적인 것, 가동적인 것, 제이차적인 것을 말하는데 이를 비유로써 말하면 “체”와 “용”의 관계는 “바다”에 대한 “파도”와도 같다. “바다”와 “파도”가 두 몸[體]이 아니건마는 “實”과 “虛”는 크게 달라 “바다”는 “실”로, “파도”는 “허”로 비유된다.

<u>바다(본체)</u>	<u>파도(작용)</u>
꽃	을, 도, 만, 뿐...
앉	고, 자, 거든, 다가...

위의 표에서 보면 “꽃”과 “앉”은 “본체”에 “을, 도, 만, 뿐.../고, 자, 거든, 다가...”는 “작용”에 해당한다.

주자(朱子)의 말을 빌면 “靜은 곧 태극의 體이며, 動은 곧 太極의 用”이라 한다든가, 또 다른 말로 “元(Element)은 體이며, 用은 기능(Function)”에 해당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체용의 사상은 주시경과 최현배의 말본 연구에도 깔려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우리의 사유에는 이러한 二元的 사유가 본래적으로 잠재적으로 있어 왔으므로 이러한 사유의 유형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들에게 잘도 맞물리게, 잘 먹혀 들어가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꽃에」와 「앉다」에서 보면 주시경의 말본은 「A+B」와 「A+B」 네 낱말로 분석하고, 최현배의 말본은 「A+B」와 「AxB」의 세 낱말로 분석되는데,

A를 「實, 體, 用」으로, B를 「虛, 用, 動」으로 본다면 다같이 이원적(二元的) 체용(體用) 사상이 깔려 있다고 하겠으며, 이러한 이원적 사유는 곧 「음달, 양달」식 두 가지 “분별”이 주가 된 우리 맞춤법에도 잘 반영되고, 잘 먹혀들어가는 조상 전래의 본래적 사유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助辭” 산출의 토양적 여건에는, 한어 표기에 나타난 “實”과 “貌”에 대한 “虛”와 “靜”이 고려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고대 한어의 특질이 개념의 연속으로 되어 있으므로, 한어에서는 그 말본을 어차피 고립어로서의 특질, 곧 각 낱말이 개념어라는 데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하여 개념어 중심인 고대 한어는 중국 사람들의 언어 의식에 「實」과 「虛」라는 독특한 두 가지 분별을 하기에 이른다. 말하자면 우리들은 낱말을 두고, 이를 객관적인 사실을 나타내는 말과 주관적인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말로 구분할 수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명사, 동사, 형용사와 같이 객관적인 사실을 나타내는 말을 실사(實辭)라고 하고, 정의사, 어기사, 접속사와 같이 말하는 이의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말을 허사(虛辭)라 하고 있다. 부사인 「又-」, 「亦-」, 「果-」 같은 것도 감정이나 어기(語氣, 말투)를 나타내는 데 쓰이므로 허사(虛辭)에 넣을 수 있다. 한편, 육조(六朝) 시대의 유험(劉勰)이 쓴 《문심조룡(文心雕龍)》에는 객체의 것을 「貌」, 주관적인 것을 「情」이라 하고, 모든 문예 작품을 「情」과 「貌」의 통합에서 이루어진다고 했고, 남송(南宋)의 주필(周弼)이 편찬한 삼체시(三體詩)에도 「虛(서정) 곧 抒情句」와 「實(서경) 곧 풍경묘사의 句」를 어떻게 짜 맞추는 것인가 하는 「虛·實」의 짜맞춤의 원리를 중심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때의 「實」이란 유형한 것, 유해(有解)의 것, 곧 “景”의 것을 말하고, 「虛」란 무형한 것, 「無解」의 것 곧, 「靜」의 것을 말한다. 이 「景·情」·「實·虛」를 갖추고 구송(口誦)하기 쉽게 함으로써 시의 근본 뜻을 다하는 것이며, 이 「景·情」·「實·虛」의 운용을 능란하게 잘 함으로써 시의 대가가 된다고 했다.

이와 같이 사람이 무엇을 표현하려 할 때에 「情」과 「貌」, 또는 「虛」와 「實」의 이원적 결합으로써 처리하려는 이러한 사고는 오랜 중국인의 전통적인 사상이 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마씨문통(馬氏文通)》(마건충, 1898)

에서도 “實字”를 “해석할 수 있는 사리의 것(有事理可解者)”이라 했으니 이는 객관적인 내용의 것에 대한 주관적 생각이나 느낌을 말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넷째, 중국에서의 말본 의식이 또한 여건으로 작용했으리라는 것이다. 한대(漢代)에서 청대(靑代)에 이르는 약 1,900년 간의 말본 연구는 대체로 3기로 나누고 있으나 여기서는 《三國遺事》 이전의 “語助”류의 제시로써 그 토양적 여건을 삼아야 할 것이므로 「말본 잉태기」 곧 「훈고기(訓詁期)」의 것과 「말본 의식기」, 곧 자각기(自覺期)의 것에 관해 간단히 말하려 한다.

1. 말본 잉태기(B.C. 100—A.D. 500): 경서(經書) 등 고문을 고증, 해석, 주해하던 훈고기(訓詁期)로서 문수(文首), 문말(文末), 또는 어두에 위치한 말 가운데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을 「辭」 또는 「詞」란 말을 써서 한 자 한 자마다 풀이하던 시기이다. 「시모전(詩毛傳)」, 「상서(尙書)」, 「설문해자(說文解字)」, 정현(鄭玄)의 「예기(禮記)」, 주(注) 등에서 그 보기를 찾을 수 있다. 思 辭也「毛傳」, 思 語辭「集傳」, 且 辭也, 者 別事詞也, 居 語助也…
2. 말본 의식기(A.D. 500—1600): 이 시기의 특색은 어떤 류의 것을 한 데 모으고, 이것들을 한 데 묶어 설명을 가했다는 것과 그것들 사이의 차이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 1) 장읍(長揖)의 「광야(廣雅)」(A.D. 480 경): 曰·吹·惟·…也·乎·些·只, 詞也(釋詁)
 - 2) 주흥사(周興嗣)의 「천자문(千字文)」(A.D. 500): 謂語助者 焉哉乎也(16세기 우리의 《천자문》에서 “語助”의 것을 “입겻, 어조사” 등으로 훈(訓)을 달았다는 것은 한어의 “語助”와 우리말의 “입겻”의 연계성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목을 끈다.)
 - 3) 유협(劉勰)의 「문심조룡(文心雕龍)」(A.D. 500): 「夫·惟·蓋·故」 등의 글자는 구의 발단(發端)에 두는 것이고, 「之·

而·於·以」 등의 글자는 예로부터 구의 중간에 삽입하던 것이고, 「乎·哉·矣·也」 등의 글자는 구의 끝에 쓰는 것이라 했다.

- 4) 안지추(顔之推)의 「안씨가훈(顔氏家訓)」(A.D. 590 경): 「焉字」나 「助字」로 쓴 「邪字」나 「也字」의 설명으로 보아 「語辭」라는 것은 「代名詞·副詞」 그리고 「助辭」 등을 아울러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辭」란 것은 「助辭」를 말함이 확실하다.
- 5) 유종원(柳宗元)의 「복두온부서(復杜溫夫書)」(A.D. 819 경): 「助字」 가운데서 「乎·歟·耶·哉·夫」는 「疑辭」라 하고, 「矣·耳·焉·也」는 「決辭」라 하고 있다.

위에서 말한 《삼국유사》 “助辭” 산출의 토양적 여건을 간추려 보았다. 이로써 보면, 본래적 잠재적 사유의 형태와 이것에 의거한 우리의 말본 연구의 학맥을 짐작할 수 있다. 주시경과 최현배의 말본 연구의 기초에도 오늘날 우리가 쓰는 맞춤법에도 이러한 두 가지 “분별”의 사고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원호/지눌	소용	주희	한어표기/중국 말본의식	그밖
	삼국유사			
體	+ 體(色聲氣味) + 靜(太極의 體) + 實, 貌/(實, 貌) +			… ⇒ (實辭)
用	+ 用(目耳鼻口) + 動(太極의 用) + 虛, 情/辭, 詞, 語助의 류 + … ⇒			助辭

참 고 문 헌

一然 <三國遺事>(1285)
 김윤경 <한결國語論集>(1964) 갑진문화사
 최현배 <우리말본>(1955) 정음사
 李箕永 <元曉思想 - 世界觀 ->(1971) 弘法院
 朴鍾鴻 <知性과 摸索>(1975) 博英社

- 馬建忠 <馬氏文通校注>上下冊(1898) 世界書局
學田久作 <國譯漢文大成 - 三體詩 ->(大正10) 國民文庫刊行會
中國語學研究會 <中國語研究史>(1957) 江南書院
山田孝雄 <國語學史要>(昭和10) 岩波全書
狩野直喜 <中國哲學史>(1960) 岩波書店
戶田浩曉 <文心雕龍>上(昭和55) 下(昭和58) 明治書院
上野 清 <易學の 研究>(昭和55) 歴史圖書社
藤堂明保/近藤光男 <中國古典のよみかた>(1958) 東京大學